시끌벅적 e-스타

세살배기 천재 비보이 100만건 조회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 스타가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평범한 학생이나 주부 등도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일상을 담은 동영상으로 순식간에 유명 인사로 떠오르는 것.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인터넷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웹 명사 25(Web Celeb 25)'를 선정,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스타는 3살배기 어린아이.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세살배기 어린아이가 '헤드스핀'과 '프리즈' 등 비보이들의 고난도 기술을 펼쳐 보이는 동영상으로, 미국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투브에 '최고의 어린이 브레이크 댄서!! 부긴스록'(Best Baby Breakdancer in the World!!Booginsroc)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동영상에서 30개월된 부긴스록이라는 남자아이는 춤을 추다가 역동적인 자세로 일시정지를 하는 프리즈(Freeze), 머리를 땅에 대고 회전하는 '헤드스핀', 현란한 발동작으로 플로어를 누비는 다운록(Downrock)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1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네티즌들이 퍼나르면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 있다.

또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갑니다'라는 멘트로 축구선수 이영표가 출연하는 은행 광고 패러디 동영상을 올린 '동네 오빠들'도 네티즌들에게 스타로 떠올랐다.

'그여자' 모창 동영상도 인기를 끌었다. '그여자'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올린 이 동영상은 '진이'라는 노래에 맞춰 아유미·린·이소은·정인·서민정 등 여가수들의 특징적인 목소리를 완벽히 소화해냈다.

흉내낸 연예인을 알려주기 위해 동영상은 두 소절 가량 각기 다른 모창이 흐를 때마다 해당 가수 얼굴을 보여준다.

이 동영상 모창 주인공인 공보람(여·20)씨는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외 '캐논 변주곡'을 록 버전의 기타 연주 동영상으로 무명 기타리스트에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된 임정현(22)씨 등이 인터넷 스타의 대표적 사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㊹ 멋진 솔로 스타일이란?

누구에게나 타고난 스타일이란 없다. 단지 자기의 스타일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신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두고 고정된 이미지로 일관하지 마라. 외모 면에서든 내면이든 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스타일을 소유한 사람은 매력 없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또 다른 매력들을 더하게 되지만 살면서 자신이 가장 편하고 인정하기 쉬운, 남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부분만을 자신의 이미지로 부각시키려 한다.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참아야지…' 이러한 생각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상대에게 아름답거나 멋지게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정말 아름다운 매력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 역시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항상 기존의 당신다울 필요는 없다. 항상 새로운 매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스타일은 만들어 가는 것이며, 변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신분에 맞는 멋진 스타일의 기본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이 솔로로서 갖추어야 할 스타일의 기본은 어떠할까?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스포츠센터에서 혹은 동네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고, 나름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즐기고, 영화,연극, 뮤지컬 등 문화생활에도 가끔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무엇이든 자신만의 즐거움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스타일이다.

둘째, 연애 이외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 꿈을 향해 도전하자.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늘 사랑하는 사람과의 달콤한 시간에 목말라 있기 보다는 가끔은 이를 뒤로 하고 자기 일에 심취하고 매진하는 모습, 정말 매력 있는 솔로의 모습이다.

셋째, 때로는 화끈하게 변신할 줄 아는 센스를 가지자.

즐거움을 찾는 쿨한 솔로가 멋진 스타일

헤어스타일, 의상 스타일의 변신, 몸매 가꾸기 등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그로 인한 자신감과 새 기분으로 더 멋진 사랑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함부로 사귀는 사람이 되지 말자.

지금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사귀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섣부른 선택과 만남으로 상처받는 일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연애를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연애를 갈구하고 동경하기 보다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는 Cool한 솔로가 멋진 스타일이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 (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뉴스퀴즈

49. '라이언 킹'으로 불리는 이 선수가 한국선수로는 네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소속팀인 포항 스틸러스와 미들즈브러가 이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축구종가' 잉글랜드에서 제 2의 축구 인생을 꾸리게 됐습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영표(토트넘)·설기현(레딩)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이동국 ② 박주영 ③ 이천수 ④ 조재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일(음 12월 13일 丙寅)

子 36년생 호사다마 좋은 날이지만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48년생 좋은 소식은 들려오나 서둘지는 말아라. 60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72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라. 84년생 시기상조니 준비를 잘하라. 행운의 숫자 : 11, 34

丑 37년생 새로운 곳에 온 형상이나 재미는 있다. 49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나 흉사는 없다. 61년생 물건을 조심하라. 73년생 시기는 빠르나 숨통은 터졌다. 85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협조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2, 30

寅 38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을 수는 없다. 50년생 부친의 건강도 살펴보고 인사를 올려라. 62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74년생 득도 있고 실도 있으며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7

卯 39년생 정리를 잘하면 득은 저절로 생긴다. 51년생 모든 일이 난조로다 신중하게 내실을 기하라. 63년생 시기가 빠르니 자기 사람으로 주변을 구축하라. 75년생 우연한 기회가 좋은 일로 연결되니 철처하게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辰 40년생 제사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니 분수를 지켜라. 64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라 만족한 결과가 있으리라. 76년생 설계를 다시 하라 신사가 새롭다. 행운의 숫자 : 07, 40

巳 41년생 적기의 마무리는 큰 재를 얻는다. 끝을 조심하라. 53년생 불로소득을 바라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65년생 기운이 넘치고 의욕을 앞서나 완급을 조절해야 하리로다. 77년생 새로운 인연은 좋은 결과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1, 25

午 42년생 새로운 일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54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 66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함이 지속된다. 78년생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면 가능성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4, 38

未 43년생 될 듯 될 듯한 일은 있으나 성사는 어렵다 신중하게 처신하라. 55년생 계획했던 좋은 일 이루어지리라. 67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나 침착하면 정리된다. 79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니 말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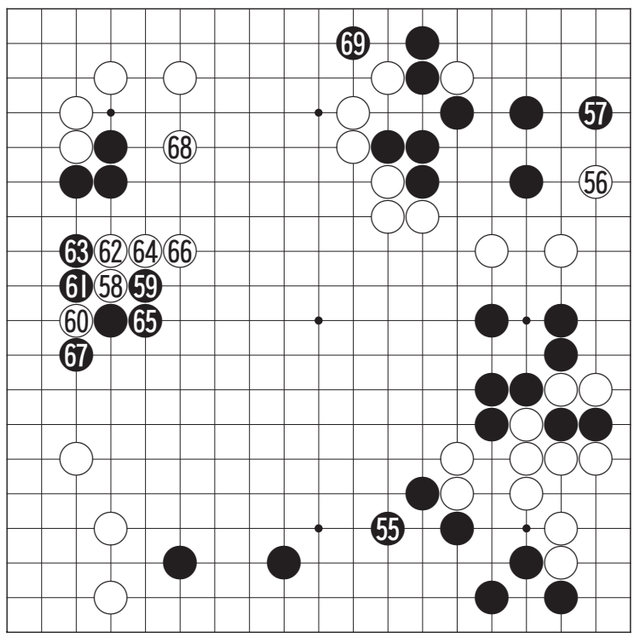
申 44년생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 베풀면 돌아온다. 56년생 모든 외형을 줄이고 실리로 바꿔라. 68년생 과욕을 버리고 친구 간의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80년생 독신은 밖으로 나가라 즐거운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3, 45

酉 45년생 길사가 적으니 조심하여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57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나 결과는 좋을 수다. 69년생 승부수를 띄워보라 결과는 이기는 쪽이다. 81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라 허술함이 보이니 보완하고 넘으라. 행운의 숫자 : 05, 26

戌 46년생 대고는 없다. 58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70년생 속으로는 통한 듯하지만 오해의 불씨가 움틀 수 있다. 82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1, 35

亥 47년생 큰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망할 수도 있다. 59년생 절대로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실속 있는 사업도 되는 일이 없으리라. 71년생 옛 인연을 지속하라 도움이 있을 수다. 83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잠깐의 즐거움은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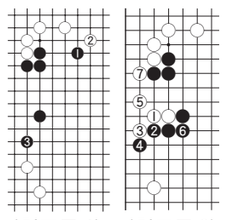


제1회 광주시 교육감배 어린이 바둑대회

초등 최강부 결승전

성급한 '헤딩' 5보(55~69)

白 박은찬 〈수문초 5〉 黑 강지수 〈주월초 6〉



〈참고도 1〉 〈참고도 2〉

선수를 잡은 강지수군은 우세하다고 생각했는지 흑 55로 단단하게 지킨다. 그런데 이수가 방향착오로 유리하던 흐름을 바꿔버린 대실착이 되었다. 이곳은 상대가 끊을 수 없는 곳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었다. 지금의 초점은 좌변이므로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을 선수하고 3으로 벌려 좌변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박은찬군도 상대의 실착을 감지하고 좌변에서 한건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뜸 백 58로 헤딩해 갔는데 이 수가 또 성급했다. 이 수로는 단순히 68의 곳에 뛰어둬야 했다. 백 60도 실수. 이 수로는 '참고도2'의 백 1로 내려서고 7까지 넘어가야 했다. 흑 67로 맛좋게 잡고 69로 뛰어서는 흑이 승기를 잡은 느낌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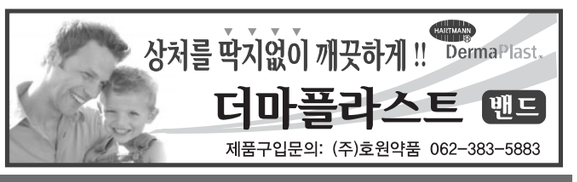
이창호, 국수전 충격의 2연패

이창호 9단이 지난달 31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50기 국수전 도전 5번기 제2국에서 윤준상 4단에게 258수 끝에 흑 반집패했다.

1국에서 이 9단의 착각으로 행운의 승리를 챙긴 윤 4단은 이날 초반부터 기선을 잡았다. 이후 이 9단의 끝내기로 잠시 승기를 빼앗겼으나 다시 끝내기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날 패배로 이 9단은 나머지 3국을 모두 이겨야 국수 타이틀을 지킬 수 있는 벼랑끝으로 몰렸다. 반면 2001년 입단한 윤 4단은 국내 대표기전인 국수타이틀에 1승만을 남겼다.

제3국은 3월 12일 중국 무한에서 속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상처를 딱지없이 깨끗하게!!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832>

Did you know ~?

~라는 사실, 자네 알았는가?

A:How are things going at your kids' school this year?
B:They are great. **Did you know** Michael is now the school principal?
A:No, I didn't That is wonderful news.
B:Yes, that is why things are going so well.

A:올해 자네 아이들 학교는 어떤가?
B:좋지. **자네 알고 있었나?** 마이클이 그 학교 교장이라는 것 말이야.
A:아니, 몰랐는데. 그것, 희소식인데.
B:그렇지, 바로 그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 거지.

How are things going ~ : ~형편이 어떤가?
principal : 교장
that is why~ : 그렇기 때문에 ~인거지
응용표현
- Did you know Michael is now a college student?
마이클이 지금 대학생이라는 사실 알았는가?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832>

どうもすみません

죄송합니다

A:すみません。シトの番號(ばんごう)を確(たし)かめてもらえますか?
B:あっ、**どうもすみません。**
A:いいえ。

A:죄송하지만 좌석번호 좀 확인해주실래요?
B:아 , **죄송합니다.**
A:괜찮습니다.

もらえますか는
もらう(받다)의 가능형으로 もらう보다 정중한 표현입니다
- 電話(でんわ)をかけてもらえますか?
전화를 걸어주실래요?
- 窓(まど)を開(あ)けてもらえますか?
창문을 열어주실래요?
더 겸손한 표현은 いただけますか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もらえますか와 같다
電話(でんわ)をかけていただけますか。
窓(まど)を開(あ)けていただけますか。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3>

每天锻炼身体

매일 운동해

A : 大夫, 我头疼, 全身都不舒服。
dàfu, wǒtóuténg, quánshēn dōubùshūfu
[illegible]
B : 来, 我给你检查检查。
lái, wǒgěni jiǎnchájiǎnchá
[illegible]
A : 大夫, 有什么问题吗?
dàfu, yǒushènme wèntíma
[illegible]
B : 没有什么问题, 你头累了只缺少锻炼, 你应该每天锻炼身体。
méyǒushènme wèntí nǐtóuléile yǒuquēshǎo duàntiàn, nǐyīnggāi měitiān duàntiànshēntǐ
[illegible]

A : [illegible]
B : [illegible]
A : [illegible]
B : [illegible]

头疼 [tóuténg] 머리 아프다
检查 [jiǎnchá] 진찰하다
锻炼 [duàntiàn] 단련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50>

雁書(안서)

기러기 안, 글 서

안서(雁書)는 철따라 이동하는 기러기가 먼 곳에 소식을 전한다는 뜻으로 '편지'를 일컫는다.

한나라 소무(蘇武)는 무제(武帝)의 사신으로 포로 교환을 위하여 흉노(匈奴) 땅에 갔다가 그 길로 흉노에 억류당하였다. 무제가 죽고 소제(昭帝)가 즉위한 몇 년 뒤 소무의 귀환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흉노의 우두머리 선우(單于)는 "소무는 벌써 오래 전에 죽었다"며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소무의 일행으로 흉노족에 투항하였던 부하가 은밀히 특사에게 찾아왔다. 끝까지 항복을 거절하였던 소무는 북해(北海) 근처에 추방당하여 어렵게 살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튿날 특사는 선우를 만나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황제께서 사냥을 하시다가 기러기를 쏘아 잡았는데, 그 발목의 헝겊이 감겨 있었소. 풀어보니 '소무는 대택(大澤·큰못) 근처에 있다'고 적혀 있었소. 이것만 보아도 소무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소."하였다. 안색이 변한 선우는 잘못을 사과하고 소무를 돌려보냈다고 한다.(漢書·蘇武傳)

이 때부터 편지를 안서(雁書) 또는 안백(雁帛)·안찰(雁札)·안신(雁信)이라고도 한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